

'포스트 코로나' 광양시 로컬관광도시 도약한다

국내 여행 수요 증가 대비
 광양에서 한달 여행하기
 남도 자전거길 상품 등
 웰니스·야간관광자원 활용
 다양한 맞춤형 관광상품 준비



광양 구봉산 전망대.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는 광양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느랭이골 자연리조트 글램핑장.

광양시가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뉴노멀(New Normal·새 기준) 관광시장을 대비한 광양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광객 물이에 나선다.

광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인 다음 달 6일을 겨냥해 장기간 침체한 광양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준비했다.

광양시는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광양 관광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광양에 와야 할 10가지 이유' 등 흥미를 끄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했다. 시티투어·광역버스·코레일 연계 관광상품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광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남도 자전거길' 등 로컬여행상품도 운영한다.

코로나 19 여파로 당분간 해외여행이 국내 여행으로 대체되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보다 청정 자연에서 웰니스를 추구하는 언택트(비대면) 여행이 주목받을 것에 대비한 조치다.

해비치로 관광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선사인 해변공원 경관조명이 마무리되는 올여름에는 준공식과 함께 조영소, 축하공연 등 특별 이벤트를

열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햇빛광양 시티투어는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평일(10인 이상), 주말(5인 이상) 예약 시 운행으로 조건을 완화한다.

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6권역 남도바닷길 사업 하나로 음식과 지역관광을 융합한 미식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 미식 관광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된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백운산 자연휴양림 등에서 체험, 힐링, 숙박, 음식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상품도 진행한다. 감성과 체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관광상품이다.

광양시는 해오름육교 등 신규 확장 관광자원과

광양불고기 등 광양의 맛 등을 다양한 형태로 광고하며 홍보할 계획이다.

유튜브,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를 열고, 찾아가는 관광안내소(차량)를 운영하며 관광객 물이에 나선 예정이다.

새 광양관광 슬로건을 토대로 5월 중순까지 통합 디자인(BI)을 개발하고,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광도시 이미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관광객 수용을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선사인 관광협업센터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광양시관광협의회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공동체 기반 관광사업체를 육성하는 등 관광거버넌스를 구축, 관광관련 사업 컨설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주요 관광시설 및 안내표지판을 점검·정비하고 관광지 리플릿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관광객 만

족도 조사도 진행,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기반조성 사업 등 핵심관광 기반시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구봉산 전망대, 느랭이골 자연휴양림, 해달별천문대, 해비치로 야간경관조명 등 광양의 풍부한 야간관광자원을 통해 광양의 밤을 즐기는 체류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광양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코로나에 지친 국민에게 휴식을 선물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새 브랜드 BI 확정

고흥군이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로 'GO, GOHEUNG'을 확정했다.

고흥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건강한 먹거리, 알찬 체험거리가 풍부한 관광 여건을 기반으로 고흥이 새로운 꿈과 미래로 향해 나가는 모습을 내어민다고 설명했다.

디자인은 지명을 강조하면서 외부인들에게 고흥을 친숙한 이미지로 전달하도록 표현했다.

고흥군은 새로운 BI를 관광 분야에 활용해 대표 브랜드를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새로운 BI는 간결하면서도 고흥의 명칭을 방문객들에게 쉽게 알리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졌다"며 "BI를 군정 전반에 투영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플랫폼으로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농촌관광은 곡성 여기애'

농림부 공모 사업 최종 선정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지역 단위 농촌관광 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29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농촌관광은 곡성 여기애(이하 '곡성 여기애')'라는 사업을 응모해 선정됐다.

지역 단위 농촌관광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농촌관광 운영 주체들이 연계해 특색 있는 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사업 선정으로 1억2000만원(국·군비 균분)을 들어 곡성 여기애를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매년 사업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사업을 지원한다. 최대 3년 동안 3억 6000만원 규모의 사업이 가능한 셈이다.

곡성 여기애는 지역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계절 농산물과 지역대표 가공식품을 접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 운영되던 농촌관광 프로그램에 농산물 팝업스토어(임시상점)를 더하고, 지역향토 음식 메뉴를 제공해 로컬음식 문화에 관한 관심을 유도했다. 여기에 새로운 지역특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곡성만의 농촌 체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이를 통해 섬진강을 따라 분포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역의 환경과 문화적 특성에 맞는 농촌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농업 1번지'라는 전남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관광객들에게 자연, 생태, 환경이라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전달하겠다는 포부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촌관광 트렌드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농촌관광 하면 '곡성 여기애'를 떠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여수시 웹드라마로 대한민국 공공PR대상 최우수상

여수시가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여수시는 지난 24일 열린 '2019 대한민국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 PR대상 시상식'에서 웹드라마를 활용한 홍보 성과를 인정받아 이벤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PR대상은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것으로 전국 25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우수한 홍보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해 이벤트·SNS·정책홍보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종합대상을 수여한다.

여수시는 2016년 '신지개의 사랑 이야기'부터 2017년 '여명', 2018년 '마녀곡', 2019년 '동백'까지 해마다 새로운 작품을 발표했다.

지역에서 내려오는 설화에서부터 역사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룬 여수 웹드라마는 국내외 웹영화제에서 상을 휩쓸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여수사건을 토대로 만든 웹드라마 '동백'은 '2019 서울웹페스트 특별상'과 '2019 스페인 발바오 웹페스트 황금극대상'을 수상했다. '동백'은 캐나다 다문화 TV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여수시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수시는 올해 현대와 과거를 넘나드는 SF 장르를 시도한 웹드라마 '호접몽'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꾸준히 웹드라마를 제작·발표한 노력으로 공공PR대상 첫 수상을 하게 됐다"며 "여수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관광여수의 매력을 한껏 높여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짐은 줄이고 추억은 두 배로...곡성여행 편해졌네

곡성역·기차마을에 무료 물품보관함

곡성군은 29일 "관광객 편의를 위해 디지털도어락 방식의 무료 물품보관함을 곡성역과 기차마을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곡성군은 기존에도 여행객을 위한 물품보관함이 설치돼 있었지만, 여행객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아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물품보관함 크기가 작아 여행용 캐리어를 보관하기 어려웠고 동전을 사용하는 열쇠형 방식이라 동전 교환과 열쇠 분실 등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설치한 보관함은 스마트폰 하나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카메라로 보관함에 표시된 QR코드를 인식해 어플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어플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현재 사용 가능한 보관함의 위치를 파악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다. 어플에는 외국인용 번역 페이지 지원 기능이 있어 외국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곡성군은 보관함 물품 배송서비스도 시행한다. 부족한 사정으로 물품을 직접 찾지 못



할 경우 여행객에게 배송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매일 24시간 고객센터가 연중 운영된다. 고객센터는 보관함 이용 시 불편사항 접수, 비상 시 원격제어를 통한 문제 해결도 지원한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